

마음의 소원을 비는 와흘 분향당

마을을 수호하는 마을신들은 영험한 기운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보살펴 준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신들을 정성껏 모시며 마음의 소원을 빌었다. 와흘 분향당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와흘로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34-1 ~ 조천읍 와흘리 2944(약 4km)

신와로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94 ~ 조천읍 와흘리 2568-1(약 3km)

신촌인수물길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871-1 ~ 조천읍 신촌리 1405-2(약 0.6km)

조와로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29-1 ~ 조천읍 와흘리 1459-2(약 3.8km)

양천못길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산20-10 ~ 조천읍 조천리 산62(약 0.2km)

와홀로 | 와홀 본향당

와홀로는 제주시 조천읍 와홀리의 중심도로로 마을의 이름을 딴 길이다. 와홀리는 지형이 편안하게 사람이 누운 모습과 같다고 해서 ‘논을’ 또는 ‘눈을’이라고 부르다가 와홀리(臥屹里)라고 했다. 와홀로와 중산간동로가 만나는 지점 인근에는 와홀리에서 마을신으로 모시는 와홀 본향당이 있다. 이곳에는 송당리의 금백조와 소천국의 열한 번째 아들인 백조도령과 서정승 따님애기를 모시고 있다. 사냥을 하며 돌아다니던 백조도령이 서정승 따님애기와 혼인을 하고 이 마을에 머물면서 부부신이 함께 좌정하게 되었다. 두 신 중 백조도령이 마을의 전반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치병과 육아는 서정승 따님애기가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와홀 본향당에는 오래된 팽나무가 있어 당의 영험한 기운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목으로 여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제주의 정기를 끊으려고 마을의 신당과 신목들을 많이 없앴는데 이 나무는 손대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범상치 않은 기운 때문에 와홀 본향당을 지나갈 때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걸어서 가야했다. 행여나 말을 타고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말이 다리를 절어 더 이상 가지 못했다고 전한다.



와홀 본향당

현재 와홀 본향당은 1년에 두 번(음력 1월 14일과 7월 14일) 제를 올린다. 1월 14일은 신과세제이며 7월 14일은 백중제이다. 특히 신과세제는 마을 전체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고 신께 새해 문안인사를 드리는 날로 이 날이 되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 당을 찾아 한 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고 한다. 와홀 본향당의 신과세제는 제주 마을제의 전통이 그대로 잘 전해오고 있어 제주도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주던 마을의 신들은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 마을신을 모시던 전통은 과거와 달리 많이 줄어들었지만, 와홀리는 오늘도 옛 조상들의 전통을 묵묵히 이어나가고 있다.

신와로/신촌인수물길 | 신촌리

와홀리 서쪽으로 나 있는 **신와로**는 신촌과 와홀을 연결하는 길이다.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내려가면 해안가 마을인 신촌리가 나온다. 조천읍의 서쪽에서 제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촌리(新村里)는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려시대의 기록에 이미 신촌현(新村縣)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신촌리의 마을들은 주로 바닷가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다. 옛날 중산간 지대에 속군이라는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식수를 구하기 위해 해안가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지금의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신촌리 마을 중에는 물과 관련된 이름들이 보인다. 그 중 대수동은 큰물 인근의 마을을 말하고, 동수동은 동수라는 연못이 있어서 불렀던 이름이다. 신와로의 중간쯤에서 이어지는 **신촌인수물길** 역시 옛날 인수물이 있던 곳의 의미를 반영한 이름이다. 인수물은 지금은 매립이 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조와로/양천못길 | 조천리

와홀리 동쪽으로 나 있는 **조와로**는 조천과 와홀을 연결하는 길이다.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내려가면 조천리가 나온다. 조천(朝天)이란 이름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옛날 조천관이 있던 곳이어서 조천이라 했다고 하고, 연복정 자리에 조천이라 새겨진 비석이 있었다는데서 유래를 찾기도 한다.

〈탐라지〉에는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순한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육지와 육의 교통로로 사용되었던 조천포구의 의미는 신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천리 바닷가에 있는 영장매코지는 제주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설문대할망이 제주와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했던 곳이어서 바다 쪽으로 길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라고 전한다.

조천리의 여러 마을 중에도 물과 관련되어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 조천리 남쪽에 있는 마을인 양천동(陽泉洞)은 양천못 인근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부른 이름이다. 이 마을을 지나는 길인 **양천못길**은 양천동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이름이다. 양천못은 예전에는 양대못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원래는 양대동이었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이 양천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양천동으로 불리게 되었다.